

성균관대  
三星電子  
연암전문대

# 폐렴 예방백신 개발

## 32메가 메모리반도체 개발

### 蘭 바이러스진단 시약 개발

#### ▲성균관대

폐렴예방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발될 전망이다.

성균관대 약대 李東權교수는 최근 폐렴균을 분리, 정제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실험용 쥐에 주사, 안전성 검토가 끝나면 곧 시판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교수가 이번에 정제해낸 폐렴백신은 폐렴이나 수막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4가지 폐렴균중 산성 및 중성다당류 3가지 타입이다.

미국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폐렴이나 수막염을 일으키는 폐렴균은 모두84가지로 이중 23가지가 폐렴환자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상인도 목부위에 항상 폐렴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균의 형질이 쉽게 변하고 2세 미만 유아와 55세이상 노인에게 빈발하고 있다.

李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폐렴발병에 대한 통계가 없어 미국의 백신과 같은 형태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장기간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 맞는 예방백신을 개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생물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폐렴균감염후 사망률은 여전히 높아 14~29세 3%, 30~49세 15%, 50~69세 38%, 70세이상 53%등 평균 24%로 나타나고 있다.

#### ▲삼성전자

三星電子가 현재 세계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반도체 제품중 기억용량이 가장 큰 32메가급 메모리 반도체개발에 성공했다.

三星電子가 지난 9일 개발한 32메가 마스크롬은 회로선의 폭이 0.5미크론이며 정보처리속도가 1백50나노초(1나노초는 10억분의 1초)로 일본의 샤프나 NEC제품의 처리속도 2백나노초보다도 빠른 최첨단 제품이다.

또 이 제품은 고속동작이 필요할 경우 최고 80나노초까지 정보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어 제품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2메가 마스크롬은 신문지 2백56페이지에 해당하는 알파메트 4백만자 또는 한글 1백60만~2백만자의 정보를

보존할 수 있으며 랩탑 PC 전자 수첩게임기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장가격은 개당20달러선으로 삼성전자는 내년초부터 양산에 들어가 95년까지 3년간 1억5천만달러어치를 생산할 예정이다.

#### ▲연암 축산원에전문대

난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시약이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에서 개발됐다.

이 난바이러스 진단시약은 현재 난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심비둠모자이크 바이러스」와 「오든토글로섬 등근 무늬 바이러스」의 병원체를 난에서 분리, 도끼에 주사해면역시킨 후 채혈해 만든것.

이번 난바이러스 진단시약의 개발에따라 국내 난재배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사전에 검정, 우수한 품질의 무병우량난을 생산할 수 있게됐다.

난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개방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